

“아동 미래 액션” 요약 버전

“아동 미래 액션”이란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시 인식한 정책의 ‘현주소’와 아동과의 대화를 통한 ‘계속적인 지침 버전업’

【 아동 의견에 근거한 아동 정책의 추진 】

아동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지하고 아동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이게 함

“아동 미래 액션”을 아동과의 대화
틀로서 활용해 계속적으로 신속화

아동의 의견과 증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형성

아동 및 육아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알기 쉽게 기재

아동과 함께 만드는
‘현재’와 ‘미래’

아동의 웃음이 넘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도요도는 아동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대지를 ‘아동 미래 액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7 페이지는 아동에게도 알기 쉬운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 아동 및 육아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알기 쉽게 기재한 페이지의 예 ~

주요인 아동의 의견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이의 의견이 높아지도록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움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이의 의견도 어른처럼
존중받는
사회가 좋겠다.

아이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실행
했으면 좋겠다.

아동의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이 자기자신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소중히 여긴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안심하고 육아
할 수 있다

육아 세대를
계속 성장토록 합니다

도요도 아동 기본 조례

○ 아동은 매우 소중한 존재
권리의 주인장

▶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는 소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 아동의 행복이 제일

▶ 어른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아동의 의견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 아동의 의견을 가지 있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 어른은 아동의 의견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웃음으로 이어지는 ‘놀이’ 추진

자유롭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공 놀이를
하고 싶어요.

학교 이외의
친구나 어른과 더
교류하고 싶어요.

무엇도 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 만들기

아동이 자유롭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놀이’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늘립니다.

놀이 장소가 증가한다

놀이터
+
인대도시
재조성
= 놀이터
+
놀이터
= 놀이터
+
놀이터
= 놀이터

‘놀이’ 기회 만들기

아동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놀이’ 체험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놀이’ 체험
이벤트 실시

다양한 놀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친구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자유로 노는
공간이
늘어난다

놀이터 리드
놀이터 체험을
확대할 수
있다

놀이터의 매력
전달

놀이터에
대중교통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장 다양한 방법으로 들은 아동의 의견

형식적인 의견 수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질문 내용 연구 ✓폭넓게 많은 아동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툴 활용 ✓학교에서의 출장 수업 ✓지역의 제3 공간에 직접 가서 청취

“아동 미래 액션” 책정 시 다음 3가지 방법을 이용해 4세부터 18세까지의 2,500명을 넘는 아동으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청취

아동의 제3 공간에서 청취

12개소 약 100명

- 같은 것을 생각하는 친구가 가까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
-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장소, 자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노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서 즐겁다. 만드는 놀이가 즐겁다.
- 집에서 계속 곱셈을 하면 집중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 잘 못 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알면 안심할 수 있다.
- 아빠와 엄마가 싸웠던 것이 싫었다.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

중고등학생 약 2,000명

- 주변에 사이 좋은 친구가 있고 곤란했을 때에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이상적.
- 무엇이든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 내가 도쿄도 지사라면 아동의 요망을 도입한 공원을 만든다.

출장 수업

초·중·고 각 1개교

총 약 500명

- 놀이를 통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다.
-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바뀌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좋았다. 더 아는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다.

2장 칠드런 퍼스트 사회 실현을 위해

목표로 하는 도쿄의 모습: 칠드런 퍼스트 사회

아동이 자기자신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서포트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다

아동 미래 액션

아동 눈높이에서 다시 인식한 정책의 '현주소'와 아동과의 대화를 통한 '계속적인 지침 버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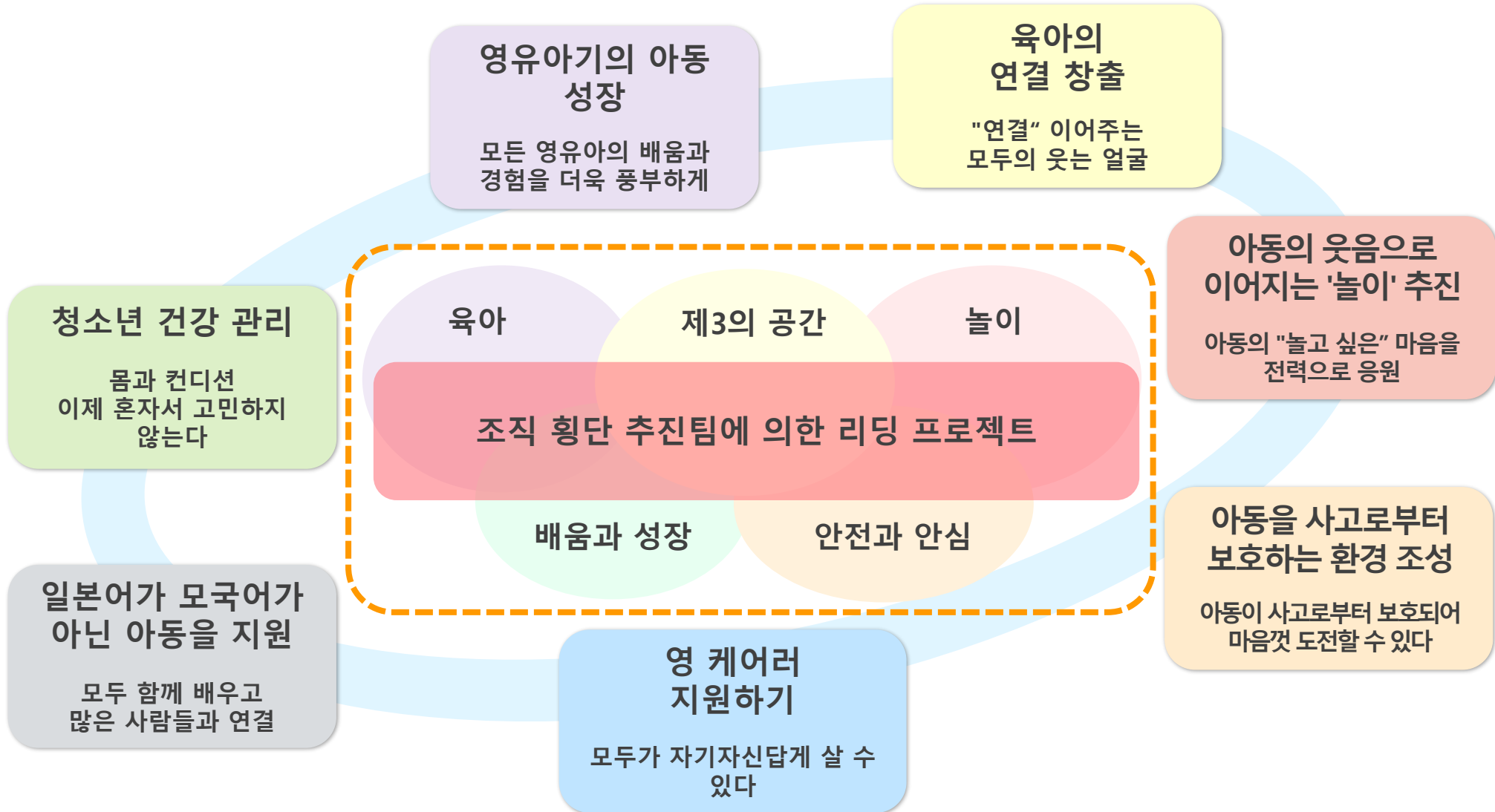
도쿄도 아동·육아 지원 종합계획(제2기)

법정의 아동·육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3장 모든 아동의 웃음이 많아지는 아동 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1. 조직 횡단 추진팀에 의한 리딩 프로젝트

기존의 틀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테마마다 아동정책연계실이 핵이 되어 정책 분야의 틀을 넘어 관계국으로 이루어지는 추진팀을 조성



영유아의 아동 성장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유보(幼保) 공통 서포트를 위한 대치를 전개

2022년 12월 "Cedep"과 협정 체결
※ Cedep :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부속 발달보육실천정책학센터

【유아 교육·보육의 확충】

유치원이나 보육소 등 시설 유형의 틀을 넘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에 접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을 책정

"아동 성장" 응원 프로그램의 개념

모든 영유아의 '탐구'를 지원 ~아동을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탐구'의 장으로 함~

아동은 일상적인 놀이에서 무의식적으로 '탐구'를 거듭하면서 성장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탐구'를 실천해 '탐구' 과정 전체의 질을 향상

호기심을 갖는 계기를 늘림

사고의 범위를 넓힘

사고의 범위를 심화시킴

평생 발달의 토대 형성

주체적으로 '탐구'의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의욕, 자기긍정감, 사회성 등의 비인지 능력을 키움

【모든 아동에게 다양한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유치원, 보육소 등에서 영유아를 정기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세로/가로/사선(※)의 다양한 타인과 관계 맺어 비인지능력의 향상 등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세로(대 어른) / 가로(대 동갑) / 사선(대 다른 연령)

아동의 웃음으로 이어지는 '놀이' 추진

【아동의 놀이터 창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플레이 공원나 공공 공간, 시설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놀이터 등, 구시정촌의 놀이터 창출을 위한 대치를 강력하게 지원 등



【아동의 '놀이' 체험 기회 확충】

아동의 친근한 장소에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아동의 '놀이' 추진 프로젝트"로서 실시해 '놀이'의 매력을 전달하면서 놀이 전문가인 플레이 리더를 육성 등

육아의 연결 창출

코로나 재앙의 영향 등으로 아동이나 육아 가정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증가
→ 현실과 가상 모든 관점에서 모든 육아 가정의 상황에 맞춘 새로운 서포트 형태를 창출

아동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환경 조성

아동의 나이와 발달에 따라 사고 종별은 변화
→ 산학관민의 연계하여 증거 기반의 사고 예방책을 전개

영 케어러 지원하기

아동의 마음이나 케어가 필요한 가족의 상황은 가지각색
→ 다기관 연계하여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각적인 서포트를 실시

일본어가 모국어 아닌 아동을 지원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양화·복잡화
→ 일본어교육·지도를 한층 확충, 상담 체제 강화, 아동이 모여 교류하는 장소의 창출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

청소년 건강 관리

사춘기는 심신의 다양한 변화에 직면함과 동시에 불안과 고민을 가지기 쉬운 시기
→ 적절한 건강 관리의 기초를 기르면서 미래를 바라본 건강 증진을 위한 대치를 지원

학령기의 아동 성장에 관한 추진팀을 출발시켜

자유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이나 지원 단체에 대한 아웃리치형 청취나 국내외의 선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기획 입안 및 실천

2. “향후 정책 강화”에 근거한 대처

【정책의 기둥 1】 어떤 아동도 낙오되지 않는 시점에서 아동 서포트를 강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이나 장기화하는 코로나 재앙에 의해 심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충

- ① 집단따돌림 대책
- ② 등교 거부 아동·학생 대응
- ③ 아동 학대 방지 대책
- ④ 자살 대책
- ⑤ 의료적 케어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등
- ⑥ 디지털을 활용한 아동의 상담 체제
- ⑦ 아동의 빈곤 대책
- ⑧ 다양한 아동의 제3 공간 창출
- ⑨ 장애아에 대한 지원
- ⑩ 사회적 양육
- ⑪ 성피해자 지원, 성피해의 미연 방지
- ⑫ 학교에서의 체력 향상을 위한 대처
- ⑬ 지역에서 스포츠에 친숙해지는 환경 정비

【정책의 기둥 4】 다양한 주체와 연계해 아동의 웃음이 많아지는 액션 전개

산학관민의 협동에 의해 사회 전체가 아동을 소중히 여기는 기운 조성 및 사회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를 전략적으로 전개

- ① 아동 스마일 무브먼트를 더욱 추진
- ② 구시정촌의 선구적·조직화된 대처 지원
- ③ 아동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정보 전달·아동 참여

【정책의 기둥 3】

“도쿄형 교육 모델”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맞추어 서포트

- ① 도쿄의 강점을 살려 아동의 눈높이를 소중히 여기는 배움
- ②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배움
- ③ 어떤 아동도 낙오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
- ④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정책의 기둥 2】 육아 세대에 맞추어 임신, 출산, 육아를 전력으로 응원

육아 세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중층 지원을 강화

- ① 임신을 생각하는 분 등에 대한 지원
- ②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 ③ 보육 서비스의 질·양 확보
- ④ 다양한 관점에서 육아 서포트
- 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의 웃음으로 이어지는 구시정촌의 대처를 응원